
서울메트로는 지난 6일 지하철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 체험행사를 벌였다.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교통약자 배려' 앞장

삼각지역서 장애 체험
내달 환경개선안 발표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가 지난 6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시각 또는 지체장애인으로 가장해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 상황을 체험했다.

체험에는 편의시설 자문위원 5명이 동행해 시설물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점에 대해 조언했다.

체험에 앞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에티켓 교육도 이뤄졌다. 교육에는 서울시의회 우창윤 의원이 참석해 교통약자에 대한 올바른 응대 요령을 강의했다. 우 의원은 지체장애인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장애인위원장이다.

한편 편의시설 자문위원단은 지난 2월부터 120개 전 역에 대해 편의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장애인을 위한 지하철 환경개선안'을 발표한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이번 체험이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참가자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과 자문위원의 의견은 향후 시설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한국관광公 "런닝맨 촬영지 놀러 오세요"

'2015 타이베이국제여전' 참가
29개 테마 등 관광객 유치 총력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지난 6~9일까지 대만 최대 여행박람회 '2015타이베이국제여전'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홍보관은 23개 지자체와 함께 한국기업들의 관광 홍보와 22개 현지 여행사의 상품을 소개했다.

특히 박람회 둘째날인 7일 SBS '런닝맨'에 출연 중인 가수 개리가 한국관에 깜짝 등장했다. 공사는 개리,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한인회와 함께 '주대만 한국인 공동 K스마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해 대한민국 국민의 친절문화를 대만인에게 각인시켰다.



한국관광공사의 초청으로 타이베이국제여전에서 'K스마일 선포식'을 함께 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한 런닝맨 출연자 '개리'(가운데)가 대만 현지 한인사회와 함께 한국의 친절한 미소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공사는 이번 행사가 단순 홍보를 넘어 실제 방한상품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국관광 홍보관에 참여한 현지 여행사 22개사와 공동으로 '런닝맨' 주요 촬영지를 코스로 하는 상품을 공동 개발, 현장 판매를 했다. 이외에도 스키체험상품, 화천산천어축제 등 29개 동계 테마상품 등 다양한 한국 여행 상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한국관광 홍보관을 구성했다.

한국관광공사 정익수 타이베이지사장은 "타이베이국제여전은 동계시즌 대만 최대 규모의 행사다. 여행상품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소비자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방한 이미지 홍보 뿐 아니라 침체된 대만 관광객 유치의 기폭제가 되도록 한국관을 구성했다. 현장 구매로 최소 6000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육아방송 통해 출산 장려 힘쓴다

'육아방송'과 업무협약

이대목동병원(원장 유경하)은 지난 5일 유로티브이 육아방송(회장 신경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육아방송은 유로티브이에서 운영하는 임신, 출산, 육아 전문 텔레비전 채널이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에 따라 이대목동병원은 다양한 임상 경험과 축적된 의료 기술을 제공, 우수한 콘텐츠 제작에 기여한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육아방송과 함께 육아와 한국 사회의 출산 장려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왼쪽)과 신경식 유로티브이 육아방송 회장이 지난 5일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걸으면서 혈당조절 하는 신발 드려요

한독 '당당발걸음' 캠페인
홈페이지 응모한 100명 선정
당뇨병 환우 전용 신발 선물

한독과 함께하는 당당발걸음

한독은 오는 14일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제 7회 '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이하 당당발걸음)'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2009년부터 실시된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독은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이 가능토록 총 100명의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한다.

'당당발걸음' 캠페인 참여는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이 필요한 사연을 한독 홈페이지(www.handok.co.kr)나, 캠페인 담당자 앞으로 우편접수(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18층 당당발걸음 담당자 앞)하면 된다. 오는 22일까지 사연 응모가 가능하며 당뇨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이웃, 친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독은 접수된 사연들 중 100명의 수혜자를 선정, 11월 말 개별 연락을 통해 신발을 전달할 계획이다.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은 당뇨전용 신발 특허를 받았으며, 재단법인 대한건기연맹에서 공식 인증한 바이오핏제품이다. 지난 2009년 20명의 수혜자로 시작된 당당발걸음 캠페인은 지난해 한독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100명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6년간 한독의 당당발걸음 캠페인을 통해 총 260명의 당뇨병 환자가 전용 신발 혜택을 받았다.

당뇨병환자는 신경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져 다치기 쉽고 상처를 잘 인지하지 못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뇨병의 흔한 합병증인 족부 궤양이 심해지면 발을 절단할 위험도 있어 철저한 발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합병증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한독 김영진 회장은 "매년 캠페인을 통해 당뇨병 환우들에게 전달되는 신발은 한독 임직원들이 급여 나눔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긴 신발인 만큼 당뇨 환우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은 1973년 당뇨병 치료제 다오닐을 발매한 이래 40여 년간 '토탈 당뇨병 솔루션 기업'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아마릴' 등과 혈당측정기 '바로잰'을 제공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당뇨병 관리 교육 프로그램(EGDM : Essential Guideline for Diabetes Management)을 도입해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문체부 '짝퉁' 음원·캐릭터 집중 단속

불법 복제물 6556점 압수

휴대전화 케이스 디자인을 베끼는 불법 복제물이 기승을 부리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캐릭터·음원 불법 복제물 2279점, 서적 불법 복제물 4227점 등 총 6556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지난해 8월부터 약 1년 동안 불법 휴대전화 케이스 1만6000여 점을 제작해 유통한 업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불법 휴대전화 케이스 판매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데다 새 학기를 맞아 대학교재 등 서적 불법 복제물이 다량 유통될 것으로 예상해 휴대전화 케이스 매장과 대학교 주변 복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시행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불법 휴대전화 케이스는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신원선 기자

메밀파스타·송어덮밥 등 평창의 진미 10선

문체부, 올림픽 특선메뉴 선봬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군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을 기념해 만든 '올림픽 특선메뉴 10선'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평창 지역의 특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한 '특선메뉴 10선'은 메밀파스타, 메밀가스, 비빔밥, 황태칼국수, 송어덮밥, 송어만두, 한우불고기, 사과토르티아, 굴리미, 천혜향 디저트다.

강원도 영월 태생의 유명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지난 9월부터 개발에 참여한 결과다.

'특선메뉴 10선' 최종 보고회는 10일 앤스페이스서울 소재)에서 열린다. /신원선 기자